

# '중·저밀 개발' 쾌적 환경 조성

## 익산부송4지구 행정절차 거쳐 8월 착공 예정

익산시가 중·저밀 방식으로 부송4지구를 개발해 시민들을 위한 건설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부송 4지구 개발계획 가운데 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등 일부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수(1,671세대) 변경 없이 공동주택용지를 추가해 중·저밀도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세대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목적용, 최고층수 등)에 맞게 공동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시는 사업이 한지방식으로 진행

됨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최소한의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경찰서를 포함한 관련 기관 의견을 수용해 교차로와 가감속차로, 주요 교차로 보행대기공간 등을 추가로 확보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관련부서 협의를 추진하고 실시계획 인가, 한지계획 인가 고시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8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송

동 지역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약 29만㎡ 부지를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한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중 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용지가 지구 내 불필요하다는 회신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심의는 지난 8일 통과됐으며 토목설계와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제2작전사령부 제6기 지문위원회에 위촉됐다. 제2작전사령부 관할 구역인 충청·호남·영남권의 교육 및 예술, 의료, 금융, 경제, 과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6기 지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

## “큰 책임감 느낀다”

### 박맹수 원광대 총장 작전사령부 지문 위원 위촉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이 제2작전사령부 제6기 지문위원회에 위촉됐다.

제2작전사령부 관할 구역인 충청·호남·영남권의 교육 및 예술, 의료, 금융, 경제, 과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6기 지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

제2작전사령부를 대신해 박맹수 원광대 학군단장으로부터 지문위원 위촉패를 전달받은 박맹수 총장은

“어게가 매우 무겁지만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작전사령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민·군 협력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하고,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지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광대 학군단이 매년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명문 학군단으로 자리한 만큼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장 ·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지역현안 해결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서군산축구장 조성, 지원 요청

김임준 군산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하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 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갖고 군산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겸인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 건의했다.

지난 2018년 9월 출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조2,000억원이 발행되는 등 군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다.

이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도 이어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 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갖고 군산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운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금번 군산시가 건의한 사업은 ▲서군산축구장 조성 14억원 ▲금강체육공원 제1아구

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6억원 ▲승화원 추모관(봉안당) 신축사업 10억원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의회, 현장방문 통해 주요사업 추진

군산시의회가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군산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비응마파지길 현장 등 2개소를 방문했다.

행복위는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주요사업과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위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자원과의 연계 활동을 비롯한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아이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행복위원들은 비응마파지길에서는 비응공원을 연계하여 해안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산책로는 새로운 관광명소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책로 시설

과 주변의 주차장 화장실 등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건설위원회도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군산박거리통합지원센터, 과학영농융합농업혁신센터 등 4개소를 방문했다.

현장방문에 참여한 경건위 의원들은 각 방문지마다 담당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특성에 따라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먼저 경건위원들은 새만금 신항만 구축 현장을 방문해 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업무 공백 없는 신청사 건립 추진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일부 부서를 주말 사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는 등 업무 공백 없는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익산시의회가 제기한 LH의 사업비 투자 없이 전액 시비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LH의 투자계획이 담긴 수탁기관 신청서를 공개하며 사업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28일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청사건립에 착수했다.

지난 22일부터 청사 후관과 분청사 일부 부서들의 사무공간을 주말 사이 이전했다. 종합운동장으로 임시 이전한 부서들은 신청사 건립이 마무리되는 2023년 입주하게 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국토부의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선정 이후 2018년 국토부·LH·익산시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전북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진행

됐고 지난해 12월 LH의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심사를 통해 LH가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LH가 익산시에 제출한 수탁협상 신청서에는 익산시의회가 제기한 불명확한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

실제, LH는 수탁기관 신청서에 약 70억원의 신청사 건립비용을 선투자하겠다고 공식 문서에 적시했다고.

민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문서로 익산시에 통보한 상태다.

이율리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익산시의회에 설명해왔고, 최근에는 시의회가 제기한 LH의 불명확한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조만간 추가 설명에 나서겠다고 신청사 건립에 익산시의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기간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공동주택과 전북대 익산캠퍼스의 주차공간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정현을 시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총력주둔

익산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유리아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지정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22일 열린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우리시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 중간 결과와는 별개로 그동안 받았듯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번 4차 계획안에 익산역 유리아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과 국가스킬플러스터 산업선 건설을 건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군산시, 전기차산업연계 청년일자리 참여사업 모집

군산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미래형 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을 오는 5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래형 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신산업인 전기차산업분야에 청년일지리를 발굴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 전기차 산업분야와 연계한 그린일자리모형을 발굴해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해 지난해 선정됐다.

참여사업장으로 선정돼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청년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과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을 제공한다.

사업규모는 청년직접일자리 138개로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간 기업과 청년을 지원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